

한국어 대인관계 단어에 내재된 차원 탐색*

장 혜 진

김 영 근†

인제대학교

본 연구는 대인관계 단어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의 기본 범주를 살펴봄으로써, 그 구성 차원이 어떠한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20대, 30대, 40대, 50대로 구성된 각 20명의 성인 참가자에게 대인관계 단어를 유사한 의미끼리 분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분석 결과, 모든 연령에서 2차원이 도출되었으며, 20대의 대인관계 차원은 '우호-냉담', '수평-수직'으로 명명하였다. 30대는 '우호-냉담', '유순-친밀'로, 40대와 50대는 '우호-냉담', '협동-사교'로 명명하였다. 대인관계 단어 도구를 비롯한 본 연구 결과가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과 학습 및 지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대인관계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적 검토와 구분을 통해 대인관계가 어떠한 태도와 반응으로 구성되어 분류될 수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인관계, 대인관계 단어, 대인관계 차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2004).

† 교신저자: 김영근,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Tel: 055-320-4024, E-mail: ykkim@inje.ac.kr

인간의 삶은 주로 다양하고 무수한 대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성장과정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는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우관계·이성관계·직장에서의 관계 등이 삶에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그 관계의 질에 따라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나와 상대방의 입장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 개인의 적응이나 동기부여 및 바람직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정남운, 2004). 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맺는 상호 간의 관계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 또한 대인관계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인관계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행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으로서, 개인의 다양한 내적 성격과 의도적 태도 및 외적 행동입과 동시에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다. 즉,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 혹은 타인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대인관계의 보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Heider, 1985).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는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관계 만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상호 간의 심리적·사회적 관계로서 인간관계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최명구, 신은영, 2003; Heider, 1985).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되는 과제이자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Maslow, 1954; Schutz, 1958)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불안, 우울, 소외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비롯한 비행, 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며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영근, 최보금, 박경선, 2018; 김영미, 2006).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수록 안전한 관계망 속에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지지가 뒷받

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삶에서 맞닥뜨리는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Yeung & Fung, 2009). 따라서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이미련, 남문희, 2014).

이처럼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인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또한 시도되어 왔다. 예컨대, 대인관계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가정·학교 등에서 형성되는 부모-자녀, 형제관계, 교사-학생, 교우관계 등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대인관계 증진(박혜영, 조성근, 2020; Kivlighan, Hill, Gelso, & Baumann, 2016), 대인관계 문제(석애란, 김영근, 2018; Euler, Nolte, Constantinou, Griem, Montague, & Fonagy, 2019), 대인관계 능력(정진옥, 김수, 2019; Bánszki, Beilby, Quail, Allen, Brundage, & Spitalnick, 2018), 대인관계만족도(장혜진, 전영자, 2016; Lee, Taylor, Holbert, & Graham, 2019), 대인관계 유형(Leary, 1955; Marwell & Hage, 1970) 등의 주제가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대인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관계를 정의하여 범주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되어왔다. 주로 연구자들은 대인관계를 영역적 접근과 차원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가령, Krech, Crutchfield와 Ballachey(1962)는 인간이 가진 3가지 기본적 욕구인 ‘소속의 욕구’, ‘통제의 욕구’, ‘애정의 욕구’로 대인관계를 설명한 Schutz(1958)의 대인관계 욕구이론에 기초하여 대인관계를 ‘표현 성향’, ‘역할 성향’, ‘사회관계 성향’으로 분류하여 영역적으로 접근하였다. 여기서 표현 성향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방

에게 취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역할 성향은 개인이 맡은 역할을, 사회관계 성향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의미한다. 각 영역은 다시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표현적 성향에는 자의식적, 과시적, 경쟁적, 공격적 영역을, 역할 성향에는 사회적 모범, 지배, 주도권을, 사회관계 성향에는 우호적, 사교적, 동정적, 상대방의 수용으로 구성된 총 12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유형은 ‘일차적-이차적’ 대인관계가 있다. 일차적 대인관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고 이타이 불가능한 집단적인 관계로, 혈연·지연·학연 관계 등이 해당되는 반면, 이차적 대인관계는 개인의 가치관, 관습, 신념, 여가생활, 이해관계 등을 통해 자유의사에 따라 맺어지는 친구, 직장 동료, 친목 집단 등과 같은 관계로, 스스로 형성되거나 해체할 수 있다(김효창, 2017). 그 밖에도 ‘수직적-수평적’ 대인관계(권석만, 2004)와 ‘공유적-교환적’ 대인관계(Clark, 1989)를 영역적 접근으로서 살펴볼 수 있다. 수직적 대인관계는 상급자, 하급자 간의 관계로 부모-자녀, 스승-제자, 선배-후배, 상사-부하의 관계가 이에 속하며, 수평적 대인관계는 서로 같은 위치에서의 평등한 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주로 학교, 직장, 동호회 등 어떤 임의의 모임에서 형성된다. 공유적 대인관계는 애정을 기반으로 한 상호의존적이고 책임감 있는 매우 친숙한 관계인 반면, 교환적 대인관계는 공정성이 내재되어 있어 거래와 교환, 이익과 손해의 균형이 중요한 관계이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2000). 그러나 대인관계에 대한 영역적 접근은 단순히 어떤 특정 관계, 가령 교우관계의 질과 같은 단일 개념의 영역을 고려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인간관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천영미, 우성범, 김한주, 강충명, 양은주, 2009).

한편, 이러한 영역적 접근에 반해 Leary(1955)는 대인관계를 차원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인간이 수유의 불-쾌에 따른 대인관

계적인 불안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대인관계의 원형을 형성한다고 보는 Sullivan(1953)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그에 의하면, 대인관계는 두 가지 기본 가정이 있다(Leary, 1957). 첫째, 모든 대인행동은 ‘친애’, ‘힘·통제·지배’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된다. 둘째,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Leary는 수평 차원인 ‘우호-냉담’과 수직 차원인 ‘지배-복종’으로 대인관계의 차원을 분류하고 이를 다시 8개의 차원으로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배-독재적, 책임감-동정적, 협동적-과도 인습적, 유순함-의존적, 자기말살-피학대적, 반항적-불신적, 공격적-가학대적, 경쟁적-자기도취적이며, 이를 16가지 성향으로 이분화하여 대인관계를 설명하였다. 그 밖에 Marwell과 Hage(1970)는 대인관계를 ‘친밀감’, ‘투명성’, ‘조절’로 구성된 3차원으로 보았으며, Triandis(1972)는 ‘결속-분리’, ‘지배-종속’, ‘친밀성’의 3가지 차원을, Wish, Deutsch와 Kaplan(1976)은 ‘협동적/우호적 대 경쟁적/적대적’, ‘평등한 대 불평등한’, ‘깊이 있는 대 피상적인’, ‘사회정서적/비공식적 대 과업지향적/공식적’으로 구성된 4차원의 대인관계 유형을 구별하였다.

대인관계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과 상호지배성 및 상호의존성 등의 여러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안하얀, 서영석, 2010). 우리는 다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그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피고 그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여 자신의 대인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대인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효과적인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실제적인 교육과 상담 현장에 도움이 된다. 이에 필요한 대인관계 검사 도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이미 제작된 검사 도구의 타당화를 검증하는 연구들로서, 새롭게 개발된 검사 도구의 종류는 많지 않다. 이를테면, Leary(1957)가 대인관계 원형

모델을 제안한 이후, Horowitz(1979) 및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의 대인관계 문제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IIP)와 Wiggins(1995)의 대인관계 형용사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R; IAS-R), Rocchi, Pelletier, Cheung, Baxter와 Beaudry(2017)가 제작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Horowitz 등(1988)이 만든 IIP에 도출된 KIIP-C의 문항을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김영환 외, 2002)와 Rocchi 등(2017)이 개발한 IBQ를 번안하여 타당성을 확인한 한국형 대인관계 행동 척도(류지영, 신희천, 김은하, 2020)가 있다. 이러한 척도들은 대인관계의 기능과 효과성을 통해 일반인과 심리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특정인의 대조적인 대인관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평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문항에 기초한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 부재하거나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대인관계 특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그에 대한 개인과 타인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를 민감하게 살펴보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사람이 아무리 전문성과 임상적 민감성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존의 대인관계 척도로부터 단어를 추출하여 대인관계를 탐색할 경우, 오히려 중요한 단어가 배제될 수 있으며,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는 필요시마다 그에 적합한 단어를 다시 도출해야 하는 일과 같이 시간과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상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내적 상태나 행동을 세밀하게 나타내는 문항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의 많은 특성은 범문화적으로 보편적인 측면이 많으면서도

세부적인 구성 요소는 다르다(Mayer-Schonberger, 2011).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개발된 척도는 외국의 척도를 단순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척도를 사용하는 다양한 개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문제점이 많다(정남운, 2004). 이처럼 측정 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인식하여 다양한 대인관계 상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 가능한 단어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척도에 한해 대인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 단어 도구를 개발하여 대인관계의 기본 범주를 살펴보고 그 구성 차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인관계 단어 도구의 결과물이 대인관계를 잘 영위하고 있는 일반인과 그렇지 못한 특정인의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대인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대표 대인관계 단어 도구 개발

대인관계 단어 도구를 만들기 위한 첫 과정으로서, 우선 대인관계 단어 목록에 포함시킬 적합한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과정 동안 신중하게 단어의 수집을 진행하고자 ‘중복없이 그리고 빠짐없이(exclusive and exhaustive)’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단어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는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선별하는 것으로서, 단어의 누락과 중복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어 도구 개발은 일관된 기준과 체계에 의해 재검토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

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작업은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의 대표 대인관계 단어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대인관계 단어 총집 구성

본 연구에서는 3종의 국어사전에서 수집한 대인관계 단어들을 토대로 대인관계 단어 총집을 구성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들이 주로 문항 중심의 대인관계 척도를 다루고 있어 세부적인 대인관계 양상과 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어 도구의 개발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사전에서 대인관계 단어를 수집한다면, 다양한 단어를 고루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다고 보기에 이러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인관계 단어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관련된 연구로서 정서 단어 도구를 개발한 장혜진과 김영근(2020)은 개인을 대상으로 단어를 수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각 연구에서 제시된 단어들이 제한적이면서도 특정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어사전에서 자료를 수집한 일부 선행연구로부터 단어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단어 도구를 개발하였다. 장혜진과 김영근(2020)의 연구와 같이, 다양한 국어사전에 기반하여 단어를 수집한다면 단어 구성에서 뒤따르는 제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용이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국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들 중 대인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판단되고, 생소하지만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으며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본 적이 있는 모든 단어를 수집하였다. 이때, 대인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서, 성격, 행위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Wish 외, 1976) 이를 표현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단어를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3종의 국어

사전에서 수집한 대인관계 단어는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한 총 910개로 구성되었다.

주요 대인관계 단어 구성

앞서 진행된 과정을 통해 선정한 대인관계 단어는 총 910개이다. 그러나 문법적인 형태가 다를 뿐, 유의한 단어가 있어 이를 고려한 분류 작업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 단어는 관계 양상에 따라 다양한 어휘가 서로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의미와 사용되는 상황적 맥락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미지,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대인관계 단어를 검토하고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자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국문학 전공자와의 협업을 통해 단어를 검토하고 선별함으로써, 대인관계 단어로 보기에 부적합한 단어가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신중하고 일관된 단어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투리는 표준어로 변경하였다. 둘째, 은어 및 비속어 등의 격이 낮고 속된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보기에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단어를 선별하였다. 셋째, 신조어는 제외한다. 신조어는 과거, 시대적·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현대에 갈수록 특정 행위나 심리 상태를 상징하는 일상어의 변용에 가까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어떤 단어와 결합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일상어를 대체하는 신조어는 그 의미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 유무나 빈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속어로 간주될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신조어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넷째, 의미가 가장 유사한 용어끼리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 통합하였다. 다섯째, ‘뜻이 맞다’, ‘손을 굶다’ 등의 동사구는 제외하고 동사

또는 형용사만을 취하였다. 단, 다른 품사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명사의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였다. 여섯째, ‘부담되다’를 ‘부담하다’와 같이 능동태로 변경 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족스럽다’를 ‘만족하다’로 바꾸듯이 수동태의 구조로 된 용어는 능동태로 변경하였다. 일곱째, 선별된 단어는 모두 명사나 동명사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여덟째, 고어나 전문 용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생소한 단어를 제외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총 7회의 검토 과정을 실시하였다. 재검토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중복없이 그리고 빠짐없이’라는 본 연구 진행에서의 기본 원칙을 잘 준수하였고 그 결과, 단어의 추가적인 재선별 작업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만큼 단어의 구성이 변동이 없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함에 따라 총 249개의 단어를 선별하였다.

최종 대인관계 단어 구성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친숙하며 간결한 단어 목록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아무리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신중하게 선별한 단어일지라도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중복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정도가 빈번하고 익숙하며, 다양한 연령 집단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대표 단어 도구를 제작하여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대인관계 양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 선별의 마지막 단계로, 앞서 진행한 분류 절차를 통해 추출한 총 249개의 대인관계 단어를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친숙성과 적절성 평가에 따라 재선별 작업을 거쳤다(장혜진, 김영근, 출판중).

대인관계 단어로서의 친숙성은 제시된 단어를 평소 대인관계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

는지에 대한 수준이고, 적절성은 제시된 단어가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 단어의 친숙성 혹은 적절성의 평정치는 연구 목적에 따라 평점의 수준을 정하여 단어를 선정할 수 있는 동시에 단어 목록을 축소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박인조, 민경환, 2005; 한덕용, 강혜자, 2000). 따라서 수집된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적절한 용어로서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근거한 일반인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가자를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균등하게 선발하여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권역별로 20~50대의 남녀 4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친숙성과 적절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7점 Likert 척도 상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인관계 단어로 보기에 적절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사용하는 빈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후에 최종 선정된 대표 단어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친숙성과 적절성의 각 평정치로부터 산출한 평균이 모두 4점 이상인 단어들을 분류하여 총 249개의 대인관계 단어를 선별하였다.

대표 대인관계 단어 선정

선별된 249개의 단어 수 자체가 다양한 대인관계 단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단어 목록으로 사용하기에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교육과 현장에 실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어와 내용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단어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고 집약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하나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 구성이 요구되므로, 단어의 수를 축약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대인관계 단어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정서 단어에 관한 선행연구들(박인조, 민경환, 2005;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이만영, 이흥철, 1990; 장혜진, 김영근, 2020)을

보다라도 최종적으로 선정된 단어가 100개 내외인 점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절차는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단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휘 자료를 처리하고 측정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언어 자료를 편리하고 간단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서상규, 2009). 이러한 처리 과정에 투입할 단어들을 적절히 구성하고 선정된 후에 대표 단어 선정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면, 신뢰로운 단어 도구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249개의 단어로는 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프로그램의 분석 가능한 변인의 수를 초과하여 실행이 불가능하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부만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성에 따라 단어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성을 띤 단어 배치의 양상을 보여줄 수 없다(박수진, 정찬섭, 1999). 또한, 대인관계 양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투입된 연구 참가자가 249개의 단어를 분류하는 일은 물리적·시간적·심리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므로, 분류 작업에서 다룰 수 있는 단어의 수를 고려하여 간추릴 필요성이 있다(장혜진, 김영근,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249개 단어를 100개 내외로 맞추고자, 각 단어에 대한 친숙성과 적절성의 평균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것끼리 분류하여 83개의 대표 대인관계 단어를 선별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단어 선별과 일반인들에 의한 단어 분류의 실증적이고 이원적인 접근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대표성을 지닌 대인관계 단어 분류를 통해 도출된 성인의 대인관계 양상의 특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가 정서, 성격, 행위와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근거할 때, 보편적으로 성인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비해 특정 시기에

이르는 이정표적 사건과 역할, 사회적 관계 및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이 많으므로(성현란 외, 2020),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았다.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대인관계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대인관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소재를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 대상

연구 참가자 수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참여 단위의 수적 파악에 있다(Kirby, Gebiski, & Keech, 2002; Whitley & Ball, 2002). 참가자 수의 산출은 그릇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연구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표본의 수를 산출하고 충분한 검정을 통해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과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효진, 김양수, 박인, 2013).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참가자 수를 산출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단어 분류를 통해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아 관련된 자료는 없는 실정이므로, 탐색하고자 하는 요인은 다르지만 유사하게나마 단어 목록을 소재로 하여 단어 분류의 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장혜진과 김영근(2021)은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해 정서의 차원을 밝히고 정서 발달을 설명하고자 9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 비슷한 연구로서 박인조와 민경환(2005) 역시, 40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차원을 발견하기 위해 수행한 Wish 등(1976)의 연구에서도 8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에 수행된 장혜진과 김영근(2021)의 연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이 적용한 단어 분류 방법은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어를 선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가자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소재중인 20대, 30대, 40대, 50대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단어 분류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연구자 본인이 직접 대면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모집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및 방법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서 단어를 통해 정서의 구조를 살펴본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 2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고, 한의환과 차형태(2014)는 Russell의 감정 차원을 탐색하고자 20~62세로 구성된 8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차원 탐색에 사용되는 도구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안정적인 도구임이 확인된다면 연구 방식에 따라 참가자의 수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다.

대인관계의 많은 특성이 보편적인 가운데, 대인관계를 구성하는 일반적 요인들이 범문화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세부적인 요소는 문화마다 다르다(Mayer-Schonberger, 2011). 연구 참가자들의 경우, 모두 동일한 시대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문화 차이 속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전 연구 과정에서 참가자 사항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계

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승인(INJE 2020-11-025-001)을 받아 시작되었다. 개인이나 집단으로 참여 유형을 구성한 후, 연구 참가자들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분류 과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미리 준비된 지시문을 배부하여 그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정확히 숙지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지시문에 안내된 각 분류의 시행 기준에 따라 분류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의 반복 참여로 인해 형성된 분류 과제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이후 분류에 반영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를 모든 연구 과정에서 1회에 한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지정 분류 과제

어떤 특정 개념을 분류하는 것은 모든 과학의 핵심적인 체계로서, 인간의 심리적·행동적 문제를 연구하고 이해하며, 해결하는 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다(Barlow, 1991). 지정 분류 과제(bounded sorting test)는 Bush(1972)의 자유 분류 과제(free sorting test)의 방법을 장혜진과 김영근(2020)이 그들의 연구에서 새롭게 변경한 것이다. 이는 단어의 분류 방식이 자유 분류 과제 중심이었던 기존의 연구들보다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정확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Bush(1972)의 분류 방법은 범주 수에 상관없이 유사성에 따라 재량

표 1. 연구 참가자 수

(N=80)

연령 집단	참가자 수	참가자 구성	참가 소요 시간
20대	20	남녀 각 10명	1시간 35분
30대	20	남녀 각 10명	1시간 40분
40대	20	남녀 각 10명	1시간 50분
50대	20	남녀 각 10명	1시간 50분

몇 단어를 분류하도록 하는 반면, 지정 분류 과제는 연구자가 지정한 범주 수만큼 단어를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자유 분류 과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분류를 가능케 하지만 과제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성실한 응답을 배제할 수 없다. 그와 달리, 지정 분류 과제는 각 분류 순서마다 분류 범주 수가 지정되어 있어 과제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시간 또한 절감하여 성의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다. 또한, 단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이해에 기초하여 분류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어떠한 견해가 개입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한편, 장혜진과 김영근(2020)에 따르면 지정 분류 과제를 시행하는 데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먼저 분류된 범주의 수와 이후 분류된 범주의 수가 배수 관계에 있지 않도록 한다. 대개 참가자가 앞서 분류한 범주를 다음 순서에서 다시 분류하거나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범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어의 수는 두 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유사성에 따라 분류된 단어를 검토하는 데 있어, 한 개 단어로 이루어진 범주의 경우에는 유사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특징적인 차원을 살펴보기에 부적합하다. 셋째, 최초 분류 시에 가지고 있던 단어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단순 반복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분류마다 범주의 수를 다르게 지정하여 참가자의 분류 체계가 고루 잘 반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지정 분류 과제는 모든 연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시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한 참가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와 정확한 과제 수행을 가능케 하고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방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포함시켜 지시문을 준비하였다. 연구 목적과 대인관계 단

어 카드를 분류하는 원칙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여 지시문을 고안하였다. 본격적인 분류를 실시하기 전, 지시문의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를 참가자 스스로가 점검하고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 분류를 1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회의 연습 분류를 포함한 총 6회의 지정 분류 과제를 실시하였다. 분류 절차가 9-21-35-16-37-43개인 경우, 먼저 연습 분류인 아홉 개의 범주부터 나눈 다음, 차례대로 21-35-16-37-43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이 절차에 따라 과제를 여러 차례 수행하는 동안 단어에 내재되어 있는 차원들이 점차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각 연령별로 드러나는 대인관계의 대표적 특성을 안정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어 필요했던 과정으로 판단된다.

대표 대인관계 단어 카드

대표 대인관계 카드는 총 83개로, 가로 7cm × 세로 3cm 규격의 종이로 제작되었다. 카드의 앞면에는 단어를, 뒷면의 우측 상단에는 작은 크기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단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Matlab(Matrix Laboratory) 2021과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25 통계 프로그램의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시에는 연습 분류를 제외한 그 외 정식 분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먼저, Matlab을 사용하여 대표 대인관계 단어 분류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 자료를 통합하고 변환하였다. 이는 n 개의 대인관계 단어들 간의 유사성과 상대적 거리를 $n \times n$ 으로 구성된 유사성 행렬(similarity matrix)로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다. Matlab은 차원의 제한이 없는 배열(array)을 기본 요소로 하기 때문에 행렬을 계산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이승근, 2002).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단일 혹은 다차원의 그래프 기능을 갖고

있어 연령에 따라 두드러지는 대인관계 양상의 특성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참가자가 분류한 범주 수는 전체 단어에 영향을 미치는데, 분류된 단어들의 유사성 정도는 동일한 범주로의 분류 빈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범주 수를 종합하여 대인관계 단어의 유사성 행렬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유사성 행렬 자료를 하나의 시각적 공간으로 도출하는 기법(김영근, 2013)으로, 유사성(similarity) / 비유사성(dissimilarity) 혹은 근접성(proximity)을 나타내는 개체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잠재적 차원(latent dimension)이 내재된 공간에 시각적으로 배치시킨다(박광배, 2000). 이러한 원리에 따라 참가자들의 응답은 차원 상의 각 점으로 구성되어 좌표 상에 배치되는 것이다(민경화, 최윤정, 2007). 다차원척도법의 결과를 통해서 배치된 단어들의 유사성과 상대적인 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객관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차원의 수와 의미를 해석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타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의 분석 결과를 오버레이(overlay)하여 여러 차례 비교 및 검토하였다(장혜진, 김영근, 2021). 특히, 대인관계의 차원을 해석하는 전 과정동안 다차원척도법의 결과가 일치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줄 경우에도 단어가 지닌 의미적 관계의 특성과 범주의 명료한 구분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수행하여 대인관계 차원을 재검토하였다. 이는 결과 해석이 분석 방법의 차이가 아닌, 단어가 갖는 의미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반복해서 살펴봄으로써 대인관계의 차원이 안정적으로 도출되고 공고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 과

성인의 대인관계 차원 규명: 20대

대인관계가 연령에 따라 어떠한 두드러진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단어 분류 과제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단어들 간의 유사성 행렬에 대한 상대적 거리를 산출하여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차원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적합도 검증을 통한 스트레스(stress) 값이다. 스트레스는 개체 간의 유사성 관계와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공간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함수로,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을수록 좋다. 다음, 대인관계 차원의 도출에 사용되는 분석 자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 과정으로, 차원의 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차원의 수를 다르게 설정하여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그 까닭은 차원의 수가 높아지는 반면, 스트레스 값은 낮아지므로 탐색된 차원이 보다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적이거나 대인관계의 차원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2차원에서 4차원을 보고하고 있다. 이 점을 기초하여 각 연령별로 차원의 수를 3과 4로 가정한 후에 원 스트레스 측정치를 산출한 결과, .05보다 크게 산출되었고, 차원의 수를 2로 설정했을 경우에 .05보다 작게 나타나 2차원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원의 수는 단순히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리(scree) 도표에서 스트레스 값이 더 이상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는 수준에 도래하는 지점(elbow)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ruskal, 1964). 즉, 차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스트레스 값이 감소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박광배, 2000) 스크리 도표에서 스트레스 값이 최초로 크게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영근 & Wish, 1978). 이에 스크리 도표에서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스트레스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3차원 이상으로의 감소는 비

교적 완만한 수준에 달해, 성인의 대인관계 차원은 최소 1차원에서 최대 2차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보다 명확하고 안정된 차원의 도출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차원적 도법을 통해 대인관계 단어의 유사성 자료를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공간에 배치하여 대인관계의 구성 차원을 탐색하였다. 각 대인관계 단어는 공간 상에서 점으로 표현되는데, 점 간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점 간의 위치가 멀수록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인관계 단어는 X축으로부터 1차원을, Y축으로부터 2차원을 도출할 수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다른 연령 집단에서도 대인관계가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후 설명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20대의 대인관계 차원에 대한 탐색 결과는 뒤이어 제시하는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1차원의 한 극은 ‘고맙다’, ‘만족하다’, ‘보고 싶다’, ‘사랑하다’, ‘존경하다’, ‘친하다’, ‘평화롭다’, ‘호의적이다’ 등이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낮설다’, ‘미워하다’, ‘부끄럽다’, ‘불편하다’, ‘싫다’, ‘어색하다’, ‘오해하다’, ‘화나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 2차원의 한 극은 ‘가정적이다’, ‘도와주다’, ‘본받다’, ‘사과하다’, ‘용서하다’, ‘존중하다’, ‘호의적이다’, ‘효도하다’ 등이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가깝다’, ‘공감하다’, ‘동감하다’, ‘부럽다’, ‘인정하다’, ‘편안하다’, ‘협력하다’, ‘화나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개의 다차원 공간을 이루는 각 구성 차원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해석하기 위해 2차원 좌표 상에 배치된 대인관계 단어의 거리 값을 정리하였다. 이는 다차원 공간을 결정짓는 차원의 의미를 이론주도적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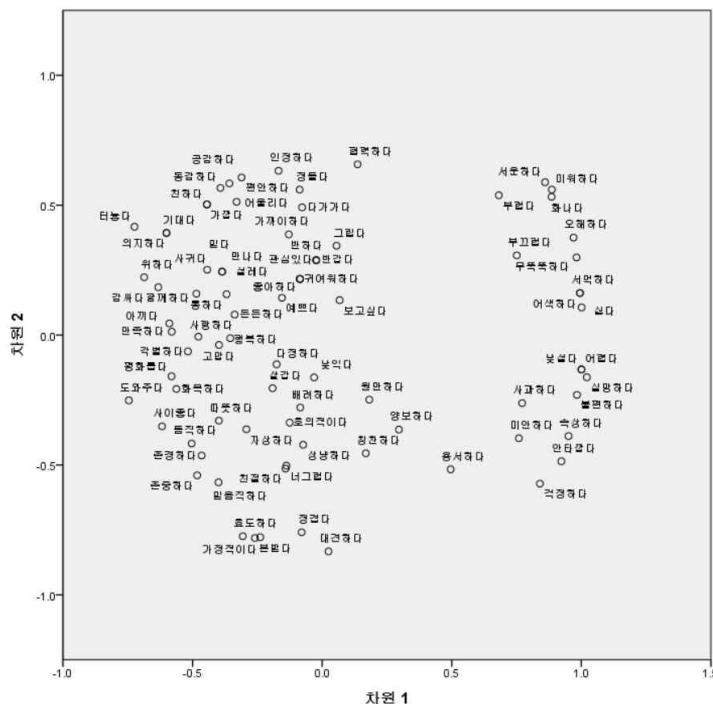


그림 1. 83개 대표 대인관계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20대(N=20)

표 2. 1, 2차원에 대한 대인관계 단어의 좌표값: 20대 (N=20)

	단어	부적 방향	단어	0점 기준	단어	정적 방향
1차원	도와주다	-.746	반갑다	-.023	실망하다	1.021
	터놓다	-.724	관심있다	-.023	싫다	1.001
	위하다	-.687	반하다	-.023	낮설다	1.000
	감싸다	-.632	대견하다	.025	어렵다	1.000
	사이좋다	-.618	그립다	.055	어색하다	.995
	의지하다	-.601	보고싶다	.067	서먹하다	.995
2차원	대견하다	-.833	다정하다	-.038	협력하다	.657
	본받다	-.781	각별하다	-.012	인정하다	.633
	가정적이다	-.778	고맙다	-.006	편안하다	.607
	효도하다	-.774	행복하다	.013	서운하다	.588
	정겹다	-.759	사랑하다	.045	공감하다	.584
	걱정하다	-.572	만족하다	.079	동감하다	.566

가설검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작업으로서(박광배, 2000), 차원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대인관계 차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김영아, 김진관, 박수경, 오경자, 1997). 이에 다차원척도법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3차원 좌표를 토대로, 각 대인관계 차원의 0점을 중심으로 한 다음,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단어들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0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단어들을 선별하였고,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단어들을 분류하였다. 20대의 응답 자료에 대한 좌표값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1차원에서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의 끝부분에 위치한 단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1차원의 부적 방향은 ‘도와주다’, ‘터놓다’, ‘위하다’, ‘감싸다’, ‘사이좋다’, ‘의지하다’, ‘기대다’, ‘아끼다’, ‘평화롭다’, ‘만족하다’가 구성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실망하다’, ‘싫다’, ‘낮설다’, ‘어렵다’, ‘어색하다’, ‘서먹하다’, ‘서먹하다’, ‘불편하다’, ‘무뚝뚝하다’, ‘오해하다’, ‘속상하다’가 분포되어 있

다. 0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은 ‘상냥하다’, ‘낮익다’, ‘반갑다’, ‘관심있다’, ‘반하다’, ‘대견하다’, ‘그립다’, ‘보고싶다’, ‘협력하다’, ‘칭찬하다’가 있다. 다음, 2차원의 부적 방향은 ‘대견하다’, ‘본받다’, ‘가정적이다’, ‘효도하다’, ‘정겹다’, ‘걱정하다’, ‘믿음직하다’, ‘존중하다’, ‘용서하다’, ‘친절하다’가 위치하고 있고, 정적 방향은 ‘협력하다’, ‘인정하다’, ‘편안하다’, ‘서운하다’, ‘공감하다’, ‘동감하다’, ‘미워하다’, ‘정들다’, ‘부럽다’, ‘화나다’가 자리하고 있다. 0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은 ‘다정하다’, ‘각별하다’, ‘고맙다’, ‘행복하다’, ‘사랑하다’, ‘만족하다’, ‘아끼다’, ‘든든하다’, ‘싫다’, ‘보고싶다’가 있다.

이상으로, 20대의 정서를 구성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정서는 2차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인관계의 1차원을 ‘우호-냉담’, 2차원을 ‘수평-수직’으로 명명하였다.

성인의 대인관계 차원 규명: 30대

30대의 대인관계 차원에 대한 탐색 결과는 뒤 이어 제시하는 그림 2와 같다. 구체적으로, 1차원의 한 극은 '가까이하다', '믿다', '본받다', '사랑하다', '인정하다', '정겹다', '친하다', '화목하다' 등이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낯설다', '무뚝뚝하다', '미워하다', '불편하다', '서먹하다', '서운하다', '어렵다', '오해하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 2차원의 한 극은 '가정적이다', '너그럽다', '다정하다', '따뜻하다', '살갑다', '상냥하다', '자상하다', '효도하다' 등이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가깝다', '각별하다', '낯익다', '다가가다', '배려하다', '친하다', '함께하다', '통하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 과정으로, 각 차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2차원 좌표 상에 배치된 대인관계 단어의 위치값을 정리하였다(표 3). 1차원에서 부정 방향과 정적 방향의 끝 부분에 위치한 단

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1차원의 부정 방향은 '그립다', '보고싶다', '반갑다', '정겹다', '정들다', '편안하다', '좋아하다', '존경하다', '본받다', '사랑하다'가 구성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화나다', '미워하다', '실망하다', '부럽다', '싫다', '서운하다', '어렵다', '불편하다', '속상하다', '낯설다'가 분포되어 있다. 0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은 '함께하다', '협력하다', '도와주다', '위하다', '의지하다', '다정하다', '가깝다', '사이좋다', '살갑다', '상냥하다'가 있다. 다음, 2차원의 부정 방향은 '상냥하다', '자상하다', '다정하다', '살갑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따뜻하다', '가정적이다', '효도하다', '용서하다'가 위치하고 있고, 정적 방향은 '낯익다', '사이좋다', '가깝다', '공감하다', '동감하다', '친하다', '각별하다', '평화롭다', '통하다', '협력하다'가 자리하고 있다. 0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은 '그립다', '기대다', '서운하다', '미워하다', '고맙다', '믿다', '양보하다', '편안하다', '반갑다', '싫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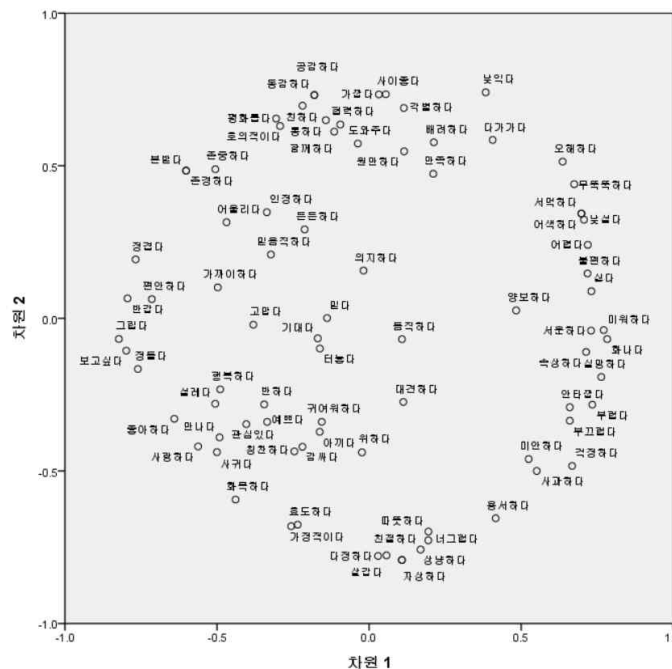


그림 2. 83개 대표 대인관계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30대(N=20)

표 3. 1, 2차원에 대한 대인관계 단어의 좌표값: 30대 (N=20)

	단어	부적 방향	단어	0점 기준	단어	정적 방향
1차원	그립다	-.823	도와주다	-.037	화나다	.783
	보고싶다	-.798	위하다	-.023	미워하다	.771
	반갑다	-.794	의지하다	-.018	실망하다	.763
	정겹다	-.768	다정하다	.029	부럽다	.734
	정들다	-.760	가깝다	.032	싫다	.731
	편안하다	-.714	사이좋다	.055	서운하다	.730
2차원	상냥하다	-.792	서운하다	-.040	낮익다	.741
	자상하다	-.792	미워하다	-.039	사이좋다	.734
	다정하다	-.778	고맙다	-.021	가깝다	.734
	살갑다	-.776	믿다	.001	공감하다	.732
	친절하다	-.757	양보하다	.026	동감하다	.732
	너그럽다	-.727	편안하다	.063	친하다	.697

이상으로, 30대의 정서를 구성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30대의 정서는 2차원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의 1차원을 '우호-냉담', 2차원을 '유순-친밀'로 명명하였다.

성인의 대인관계 차원 규명: 40대

40대의 대인관계 차원에 대한 탐색 결과는 뒤이어 제시하는 그림 3과 같다. 구체적으로, 1차원의 한 극은 '가깝다', '관심있다', '다가가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친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등이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낮설다', '미워하다', '불편하다', '서운하다', '싫다', '어렵다', '어색하다', '오해하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 2차원의 한 극은 '도와주다', '믿음직하다', '배려하다', '양보하다', '용서하다', '의지하다', '친절하다', '호의적이다' 등이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각별하다', '귀여워하다', '그립다', '낮익다', '보고싶다', '사랑하다', '친하다', '함께하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

다음, 2차원 좌표 상에 배치된 대인관계 단어의 위치값을 정리하였다(표 4). 1차원에서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의 끝 부분에 위치한 단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1차원의 부적 방향은 '설레다', '어울리다', '사귀다', '만나다', '가까이하다', '믿음직하다', '가깝다', '반갑다', '친하다', '기대다'가 구성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무뚝뚝하다', '오해하다', '불편하다', '서운하다', '화나다', '싫다', '실망하다', '미워하다', '서먹하다', '낮설다'가 분포되어 있다. 0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은 '고맙다', '든든하다', '예쁘다', '귀여워하다', '배려하다', '너그럽다', '양보하다', '존경하다', '본받다', '도와주다'가 있다. 다음, 2차원의 부적 방향은 '용서하다', '도와주다', '사과하다', '양보하다', '배려하다', '따뜻하다', '자상하다', '너그럽다', '원만하다', '호의적이다'가 위치하고 있고, 정적 방향은 '예쁘다', '귀여워하다', '정들다', '칭찬하다', '터놓다', '인정하다', '동감하다', '낮익다', '공감하다', '부끄럽다'가 자리하고 있다. 0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은 '대견하다', '어울리다', '반갑다', '오해하다', '설레다', '사귀다', '좋아하다', '불편하다', '만나다', '다가가다'가

있다.

이상으로, 40대의 정서를 구성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40대의 정서는 2차원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의 1차원을 '우호-냉담', 2차원을 '협동-사고'로 명명하였다.

성인의 대인관계 차원 규명: 50대

50대의 대인관계 차원에 대한 탐색 결과는 뒤이어 제시하는 그림 4와 같다. 구체적으로, 1차원의 한 극은 '가까이하다', '각별하다', '감싸다', '믿다', '반갑다', '사랑하다', '원만하다', '호의적이다' 등이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낯설다', '무뚝뚝하다', '미워하다', '불편하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어색하다', '오해하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 2차원의 한 극은 '도와주다', '배려하다', '사과하다', '아끼다', '양보하다', '위하다', '존중

하다', '협력하다' 등이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가깝다', '관심있다', '다가가다', '만나다', '사이좋다', '어울리다', '편안하다', '터놓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

다음,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2차원 좌표 상에 배치된 대인관계 단어의 위치값을 정리하였다(표 5). 1차원에서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의 끝 부분에 위치한 단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1차원의 부적 방향은 '서먹하다', '어렵다', '낯설다', '어색하다', '실망하다', '서운하다', '미워하다', '불편하다', '오해하다', '부끄럽다'가 구성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호의적이다', '예쁘다', '협력하다', '귀여워하다', '가까이하다', '감싸다', '다가가다', '칭찬하다', '어울리다', '가깝다'가 분포되어 있다. 0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은 '공감하다', '동감하다', '가정적다', '보고싶다', '사랑하다', '화목하다', '정겹다', '든든하다', '대견하다', '듬직하다'가 있다. 다음, 2차원의 부적 방향은 '사과하다',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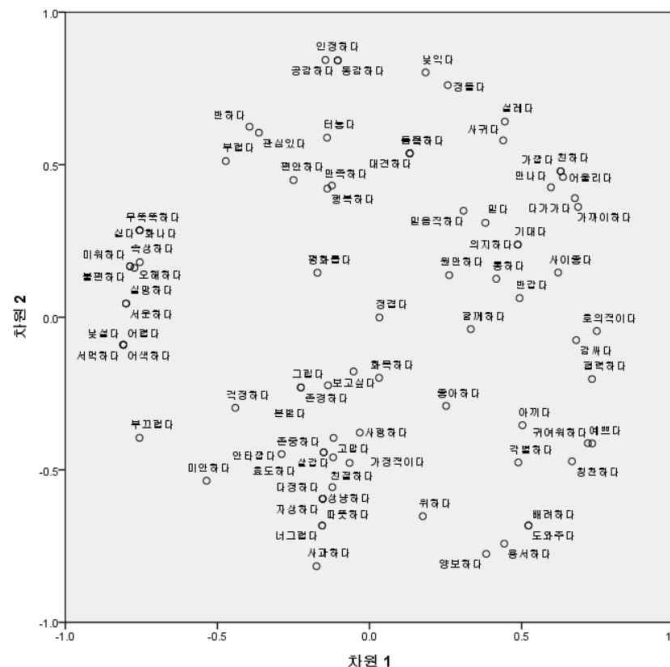


그림 4. 83개 대표 대인관계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50대(N=20)

표 5. 1, 2차원에 대한 대인관계 단어의 좌표값: 50대 (N=20)

	단어	부적 방향	단어	0점 기준	단어	정적 방향
1차원	서먹하다	-.809	가정적이다	-.066	호의적이다	.747
	어렵다	-.809	보고싶다	-.053	예쁘다	.732
	낮설다	-.809	사랑하다	-.032	협력하다	.731
	어색하다	-.809	화목하다	.031	귀여워하다	.718
	실망하다	-.800	정겹다	.032	가까이하다	.685
	서운하다	-.800	든든하다	.132	감싸다	.679
2차원	사과하다	-.816	호의적이다	-.045	인정하다	.843
	양보하다	-.776	함께하다	-.039	공감하다	.842
	용서하다	-.742	정겹다	-.001	동감하다	.842
	따뜻하다	-.683	실망하다	.045	낮익다	.802
	너그럽다	-.683	서운하다	.045	정들다	.761
	배려하다	-.682	반갑다	.063	설레다	.641

보하다, '용서하다', '따뜻하다', '너그럽다', '배려하다', '도와주다', '위하다', '다정하다', '상냥하다'가 위치하고 있고, 정적 방향은 '인정하다', '공감하다', '동감하다', '낮익다', '정들다', '설레다', '반하다', '관심있다', '터놓다', '사귀다'가 자리하고 있다. 0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은 '어색하다', '감싸다', '호의적이다', '함께하다', '정겹다', '실망하다', '서운하다', '반갑다', '통하다', '원만하다'가 있다.

이상으로, 50대의 정서를 구성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50대의 정서는 2차원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의 1차원을 '우호-냉담', 2차원을 '협동-사교'로 명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표 대인관계 단어에 내재된 차원을 탐색함으로써 성인의 대인관계 양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20대, 30대, 40대, 50대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두 개의 차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20대의 첫 번째 대인관계 차원을 '우호-냉담', 두 번째 차원을 '수직-수평'으로, 30대는 첫 번째 대인관계 차원을 '우호-냉담', 두 번째 차원을 '유순-친밀'로 해석하였다.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차원을 '우호-냉담', 두 번째 차원을 '협동-사교'로 해석하였다. 서로 다른 연령마다 대인관계 차원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나, 그 중 '우호-냉담'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날 만큼 대인관계에서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한 극단에는 온화, 친절, 애정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다른 한 극단에는 불만, 회피, 의심과 같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는 정서, 성격, 행위와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는 만큼, 이들 요인은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특성이다. 연령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도출된 '우호-냉담' 차원은 모든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복합적인 심리적 양상으로서, 특별한 학습이 요

구되지 않는 원초적인 '쾌-불쾌'의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장혜진, 김영근, 2021).

정서는 대인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대인관계를 통해 다양하게 체험한다(정진선, 문미란, 2016). 가령, 우리는 가깝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기쁨, 행복 등을 느끼는 반면, 불편하거나 싫은 사람과 함께할 때 분노, 슬픔 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정서는 행동적 반응 또한 수반하므로, 대인관계에서 정적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착행동을 유발하며, 그 관계를 지속하거나 더욱 심화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부정 정서를 많이 느끼는 대인관계는 불만족스럽고 상대에 대한 분노나 공격적 행동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경향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전달받기도 한다. 즉,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유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특정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내면적 욕구나 의도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김효창, 2017). 이는 대인관계 원형모델을 구성하는 축으로 우호-냉담의 '친애'를 1차원으로 제시한 Leary(1957), Alden, Wiggins와 Pincus(1990), 정남운(2001)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C)의 타당화를 살펴본 김영환 등(2002)의 연구 역시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우호-냉담'은 연령에 관계없이 범문화적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 차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차원에 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차원 도출에 사용된 연구 도구의 각 언어는 문화와 사회적 제약 및 영향에 대해 여러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마다 언어가 지닌 가치가 다르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동일하지 않아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Brandt & Boucher, 1986). 20대에서 탐색된 2차원의 한 극단에는 친

절, 존중, 효도와 같이 상대를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다른 한 극단에는 인정, 편안함, 공감과 같이 서로 인정하고 협력적 관계로 소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현대로 갈수록 수직적 관계를 전통적 가치관이 반영된 부당한 고착 관계로 인식하는 대신, 수평적 관계는 평등을 강조하는 관계로 보고 이를 추구하는 쪽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평적 관계는 사람들 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전개가 되지만 필요에 따라 서열이 성립되고 변할 수 있는 한편, 수직적 관계는 다양한 생활 문화적 관행에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려움만을 동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조사 결과에서 20대는 '욕심이 많은 세대', '이기적인 세대'라는 평가가 높은 만큼(리서치보고서, 2012),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와 모습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고유성이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수직적 관계는 서열과 위계성을 지니는 동시에 형평성에 따라 개인의 능력, 업적, 자질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므로 구성원들의 대등한 관계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 이상의 성인은 '자기 멋대로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식'의 개인주의적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높기에 수평적 관계에 대한 양가감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한규석, 신수진, 1999).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존재이다.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와 능력 및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을 완성하고자 하는데(Maslow, 1943),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과업 성취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rems, Kenrick, & Neel, 2017). 존중은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경의를 표하며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가치로, 특히,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강한 20대가 자기 성장을 위해 갖

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이들의 주요한 달성 과업이 친밀감인 만큼, 다양한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가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고 삶에서 차지하는 대인관계의 비중이 매우 크다(Erikson, 1950). 앞서 언급하였듯, 수직-수평 관계는 다분히 양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사고방식, 정서, 관행을 느끼는 상황은 여전히 집단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평 관계를 추구하고 수직 관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자칫 갈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수직-수평 관계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을 갖고 신뢰와 존중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화가 필요하다.

다음, 30대의 두 번째 대인관계 차원은 '유순-친밀'로 해석하였다. 2차원을 구성하는 한 극단에는 상냥, 다정, 너그러움과 같이 부드럽고 고분고분한 개인의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을, 다른 극단에는 가까움, 각별함, 통합과 같이 서로 지내는 사이가 가깝고 정다운 양상과 관련이 있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특성으로, 유순은 건강하고 표준적인 범위에서 가지는 순기능을 고려했을 때, 융통성과 관련이 있다. 주로 배려심이 있고 순응적인 경향이 있어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의 일원으로 많은 기여를 한다(Oldham & Morris, 1990; 이강섭, 김종규, 2003). 친밀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정서적·인지적·신체적 상호작용이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Moss & Schwebel, 1993). 그러나 개념적인 측면에서 유순과 친밀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의 대인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사려깊은 태도로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주장은 대인기술 중 하나로,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된다면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유순함은 순응적인 측면이 있어 자칫 의존적이고 자존감 낮은 우유부단하

고 수용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깝고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30대의 경우, 40대에 이어 생산성이 높고 일을 잘 하는 세대 중 하나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업무적 교섭을 지속한다. '배려가 많은 세대'라는 평가가 뒤따르는 만큼(리서치보고서, 2012), 호의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우정과 친밀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개인과 자신이 속한 집단 및 국가 발전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30대는 나와 타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세대로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면서도 개인 간 혹은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대한 깊은 관심과 통합 및 조화 역시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도출된 2차원의 명명이 자료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40대의 두 번째 대인관계 차원은 '협동-사고'로 해석하였다. 이는 50대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된 것으로, 2차원의 한 극단은 협동, 서로 응답하고 주고받기와 같이 기능적으로 힘과 마음을 합쳐 함께하는 태도를, 다른 한 극단에는 관심, 정, 친교와 같이 여러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사고는 다른 사람과 쉽게 잘 사귀거나 사귀기를 좋아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친밀한 관계를 도모한다. 40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가장 일을 잘하고 생산성이 높은 세대로, 공동체 의식의 필요도와 수준이 매우 높다(리서치보고서, 2012). 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와 배려에 책임을 가지고 타인과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는 데에서 만족감을 경험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50대가 40대에 비해 사교적 측면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40대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의 필요도 수준이 매우 높고 주변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가 많은 세대로, 50대에 다다르게 되면서 자신의 삶과 남은 생애 기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달

리 하게 된다. 노부모를 비롯해 가족과 동료들이 점차 늙어가고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이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앞으로의 생애를 생존할 수 있는 남은 기간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남은 생애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구상하는 유연한 삶의 대응 방식을 적용하는 세대로, 2차원의 명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차원의 수를 밝히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의 대인관계가 각 연령마다 어떠한 고유 특성을 가진 차원으로 도출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차원의 안정성은 향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위한 가치의 틀을 제공한다(Wish 외, 1976).

본 연구 결과는 대인관계가 정서적, 성격적, 행동적 요인과 하나의 연결망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할 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 요인이며(문은식, 박선환, 정미경, 최순영, 2018), 타인에 대한 이해와 애정,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마다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혜와 해결책이 있겠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보다 더 나은 관계의 질과 양만을 추구하게 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는 그 질의 수준을 깊이 있게 검증하기 어려워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자신의 결점을 고칠 기회 또한 부족하다. 한 사람의 대인관계는 무수한 관계망 속에 이루어지고, 어느 사회에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나 행동 규범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대인관계를 평가할 때, 그의 반응이 환경의 영향인 것인지, 정서나 성격 또는 그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로 볼 것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다르며 그에 따라 각자 선호하는 방향을 택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적 기준과 가치를 익히고, 관계의 양방향성을 이해하여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통해 건전한 인격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대인관계 범위가 확장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이러한 전제 없이, 청소년이나 노년기에 해당하는 대상과 비교해본다면 연령과 문화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소재의 대상을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전국의 모든 20대~50대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자 소개

장혜진은 인제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의예과, 소비자·가족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정서심리학과 발달심리학이 주 연구 분야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김영근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전문가(주 수퍼바이저)로서, 정서심리와 상담이 주 연구 분야이다. 특히, 기초심리학으로써의 정서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써의 상담심리학의 연결고리를 통해 연구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 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26.
- 김영근, 최보금, 박경선 (2018).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의 군집분석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3), 745-766.
- 김영미 (2006).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151-178.
- 김영아, 김진관, 박수경, 오경자 (1997). 정서관련 어휘 분석을 통한 내적 상태의 차원 연구. *연차학술대회논문집*, 1997. 209-214.
- 김효창 (2017). *인간관계론*. 경기: 교육과학사
- 남문희, 이미련 (2014). 간호대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지수에 미치는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363-374.
- 류지영, 신희천, 김은하 (2020). 한국판 기본 심리적 욕구에 기반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 (IBQ)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203-1224.
- 리서치보고서 (2012). *세대갈등 및 공동체 의식에 대한 조사*, 12(8).
- 문은식, 박선환, 정미경, 최순영 (2018). *대인관계 심리학*. 경기: 공동체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수진, 정찬섭 (1999). 우리말 감성 어휘의 범주-차원 모형: 직물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하여. *감성과학*, 2(1), 77-94.
-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 박혜영, 조성근 (2020). 중학생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구조화된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청소년학연구*, 27(2), 197-223.
- 서상규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석애란, 김영근 (2018).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9(2), 305-329.
- 성현란, 성은현, 장유경, 정명숙, 박혜원, 이현진 등 (2020).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07-123.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이강섭, 김종규 (2003). 고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수학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수학교육논문집*, 16, 191-197.
- 이만영, 이흥철 (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 118-138.
- 이미지 (2014). *말뭉치 분석을 활용한 감정표현 어휘 교육 연구*. *동남어문논집*, 38, 383-402.
- 이승근 (2002). Excel과 Matlab을 이용한 계통 분석 프로그램 개발. *전주대학교 공학기술종합연구소 학술논문집*, 8(1), 443-448.
- 이효진, 김양수, 박 인 (2013). 임상 연구에서 연구 표본수의 산출. *대한건강관절학회지*, 16(1), 53-57.
- 장혜진, 김영근 (2020). 정서 발달 과정에서 정서의 차원 도출을 위한 대표 정서 단어 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3), 29-58.
- 장혜진, 김영근 (2021). 정서의 차원 분화를 통해서 본 정서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

- 격, 35(2), 19-55.
- 장혜진, 김영근 (출판중). 한국어 대인관계 단어의 친숙성과 적절성 연구. *감성과학*, 24(3).
- 장혜진, 전영자 (2016). 대학생이 지각하는 내·외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5(2), 137-152.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10, 117-132.
-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37-51.
- 정진선, 문미란 (2016). 인간관계의 심라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진옥, 김수 (2019). 간호대학생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공감능력,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3), 344-356.
- 천영미, 우성범, 김한주, 강충명, 양은주 (2009). 아동의 대인관계 군집유형과 부모요인간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103-122.
- 최명구, 신은영 (2003). 청소년의 자아구조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7(4), 1-16.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 한의환, 차형태 (2014). 각성 축의 특성을 고려한 감정차원에 관한 연구. *감성과학*, 17(3), 57-64.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Bánszki, F., Beilby, J., Quail, M., Allen, P., Brundage, S., & Spitalnick, J. (2018). A clinical educator's experience using a virtual patient to teach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Australas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4, 60-73. doi:10.14742/ajet.3296
- Brandt, M. E., & Boucher, J. D. (1986). Concepts of depression in emotion lexicons of eight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321-346. doi:10.1016/0147-1767(86)90016-7
- Bush, L. E. (1972). Empirical selection of adjectives denoting feeling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7.
- Clark, K. B. (1989). *Dark ghetto: Dilemmas of social power*. Princeton, NJ: Wesleyan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50). Growth and crises of the healthy personality. *Psychological Issues*, 1, *Monograph*, 1, 50-100.
- Euler, S., Nolte, T., Constantinou, M., Griem, J., Montague, P. R., & Fonagy, P. Personality and Mood Disorders Research Network. (2019). Interpersonal problem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ssociations with mentalizing, emotion regulation, and impuls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3, 1-17. doi:10.1521/pedi_2019_33_427
- Heider, F. (1985). *The psych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NY: Psychology Press.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doi:10.1037/0022-006X.47.1.5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doi:10.1037/0022-006X.56.6.885
- Oldham, J. M., & Morris, L. B. (1990). *The personality self-portrait*. NY: Bantam.
- Kivlighan Jr, D. M., Hill, C. E., Gelso, C. J., & Baumann, E. (2016). Working alliance, real relationship, session quality, and client improvement in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 longitudinal actor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 149-161. doi:10.1037/cou0000134.
- Kirby, A., GebSKI, V., & Keech, A. C. (2002). Determining the sample size in a clinical trial.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7, 256-257.
- Krech, D., Crutchfield, R. S., & Ballachey, E. L. (1962). *Individual in society: A textbook of social psychology*. NY: McGraw-Hill.
- Krems, J. A., Kenrick, D. T., & Neel, R. (2017). Individual perceptions of self-actualization: What functional motives are linked to fulfilling one's full potenti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3, 1-16. doi:10.1177/0146167217713191
- Kruskal, J. B., & Wish, M. (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Scaling. CA: Sage.
- Leary, T. (1955). The theory and measurement methodology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sychiatry*, 18, 147-161. doi: 10.1080/00332747.1955.11023002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Y: Ronald Press.
- Lee, T. T. C., Taylor, A. M., Holbert, A. M., & Graham, J. R. (2019). MMPI-2-RF predi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in committed cou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31, 1118 - 1124. doi:10.1037/pas0000735
- Marwell, G., & Hage, J. (1970). The organization of role-relationships: A systematic descrip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84-900. doi:10.2307/2093299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doi:10.1037/h0054346
- Maslow, A. H. (1954). The instinctoid nature of basic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22, 326-347. doi:10.1111/j.1467-6494.1954.tb01136.x
- Mayer-Schönberger, V. (2011).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ss, B. F., & Schwebel, A. I.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s: Defining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doi:10.1037/0022-0167.46.3.317
- Rocchi, M., Pelletier, L., Cheung, S., Baxter, D., & Beaudry, S. (2017). Assessing need-supportive and need-thwarting interpersonal behaviours: The 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423-433. doi:10.1016/j.paid.2016.08.034
- Schutz, W. C. (1958). *FIRO: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Y: Rinehart.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Norton.
- Triandis, H. C. (1972). *The analysis of subjective culture*. NY: Wiley.
- Whitley, E., & Ball, J. (2002). Statistics review 4: sample size calculations. *Critical care*, 6, 1-7.
- Wiggins, J. S. (1995).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Wish, M., Deutsch, M., & Kaplan, S. J. (1976). Perceived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09-420. doi:10.1037/0022-3514.33.4.409

Yeung, D. Y., & Fung, H. H. (2009). Aging and work: How do SOC strategies contribute to job performance across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24*, 927-940. doi:10.1037/a0017531

1 차원고접수 : 2021. 08. 11.

수정원고접수 : 2021. 08. 29.

최종게재결정 : 2021. 08. 30.

Dimensional Exploration Inherent in Korean Interpersonal Words

Hyejin Jang

Youngkeun Kim

Inje University

In this research, we have developed a word tool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by looking at the basic categor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 have explored what the constituent dimensions are. Twenty adults in their 20s, 30s, 40s and 50s were asked to categorize interpersonal words into similar meanings. Then, based on the results, the dimensions inherent in words are clar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wo dimensions were derived from all ages, and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in their 20s were named 'friendship-cold-hearted' and 'horizontal-vertical'. Those in their 30s named themselves 'friendly-cold hearted', 'soft-hearted', and those in their 40s and 50s named them 'friendly-cold-hearted', and 'cooperative-social'. If the tool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improving interpersonal skills, we can understand how people react to interpersonal words through various empirical studies and distin-depth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an be achieved.

Key words : *interpersonal, interpersonal, interpersonal dimensions*

부 록

83개 대표 대인관계 단어

가까이하다	대견하다	본받다	안타깝다	좋아하다
가깝다	도와주다	부끄럽다	양보하다	친절하다
가정적이다	동감하다	부럽다	어렵다	친하다
각별하다	든든하다	불편하다	어색하다	칭찬하다
감싸다	듬직하다	사과하다	어울리다	티놓다
걱정하다	따뜻하다	사귀다	예쁘다	통하다
고맙다	만나다	사랑하다	오해하다	편안하다
공감하다	만족하다	사이좋다	용서하다	평화롭다
관심있다	무뚝뚝하다	살갑다	원만하다	함께하다
귀여워하다	미안하다	상냥하다	위하다	행복하다
그럽다	미워하다	서먹하다	의지하다	협력하다
기대다	믿다	서운하다	인정하다	호의적이다
낮설다	믿음직하다	설레다	자상하다	화나다
낮익다	반갑다	속상하다	정겹다	화목하다
너그럽다	반하다	실망하다	정들다	효도하다
다가가다	배려하다	싫다	존경하다	
다정하다	보고싶다	아끼다	존중하다	